

힐러리 아성 흔들... 오바마·롬니 부상



〈바락 오바마〉 〈미트 롬니〉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가 초반부터 이변이 속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바락 오바마, 공화당의 루돌프 줄리아니, 존 매케인 등 기존 4강 구도가 깨질 가능성을 보여 과반이 예상된다.

내년 1월 민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결정을 위한 예비선거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앞두고 양당 주자들이 전국 각 주를 돌며 선거자금 모금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예상외로 선전, 양당의 기대주로 급부상하고 있다.

美 민주·공화 대선주자 1분기 모금액 대 이변 줄리아니·매케인도 부진...4강 구도 변화 조짐

특히 자금 모금액이 미국 대선 판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미 특유의 선거문화를 감안할 때 오바마와 롬니의 성공적인 초반 자금 모금 결과는 향후 미국 대선구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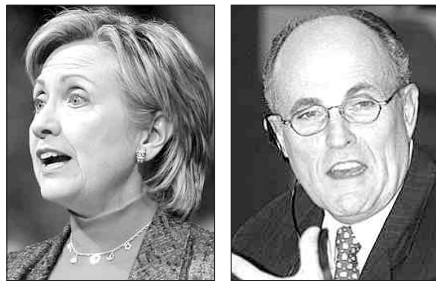
당초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후광을 입고 선거자금에 관한 한 다른 주자와 큰 격차를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힐러리 상원의원은 올 1·4분기 선거자금 모금액이 오바마보다 불과 100만 달러 많은 2천 600만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반면 당초 힐러리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오바마 상원의원은 2천500만 달러를 기록,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의 예상외 선

전에 대해 "자금 쿠데타(money coup d'etat)가 발생했다"며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선거전문가들은 오바마와 롬니의 부상에 대해 "여성인 힐러리, 이라크전을 지지하고 노쇠한 이미지가 완연한 매케인, 약점이 많은 줄리아니에 대해 미국인들이 조금씩 식상해하는 반면 40대의 오바마와 때론 지치지 않는 롬니의 신선함을 높이 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뉴햄프셔 유권자 339명을 상대로 이달 초 실시한 조사에서 힐러리 상원의원의 지지율은 2월의 35%에서 27%로 하락한 반면 오바마는 21%에서 20%를 기록, 높은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고, 최근 부인의 암 발병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존 매케인〉

은 2월의 16%에서 21%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공화당에서는 당초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줄리아니, 매케인 후보가 주춤하는 사이 미 대선주자 중 유일한 물문교도인 롬니 전 지사가 1·4분기 선거자금 확보면에서 두 주자를 무력화시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1·4분기에 롬니 전 지사는 총 2천300만 달러를 모금했고 당초 힐러리에 버금가는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던 줄리아니는 1천500만 달러, 매케인은 불과 1천250만 달러를 모금하는데 그쳤다.

화성에도 급격한 온난화 현상

태양 폭풍으로 빙판 급격히 줄어

화성에서 급격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태양 폭풍으로 보인다라는 연구가 나왔다.

미항공우주국(NASA)과 미국지질탐사단(USGS) 과학자들은 네이처지 최신훈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태양풍을 타고 몰려오는 먼지 폭풍과 태양열 반사 변화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화성 남극의 빙판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30년 동안 화성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먼지폭풍이 유례없이 자주 나타났는데 주목할 화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

션을 통해 화성 알베도(태양광선 반사율)가 먼지폭풍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먼지폭풍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 컴퓨터 모델에 지난 1970년대 말과 최근 자료를 각각 입력, 두 시기 같은 지점의 화성 온도를 측정 한 결과 지난 30년 동안 0.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구에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변화와 맞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의 온도는 계절과 장소에 따라 영하 87~영하 5℃를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표면의 밝기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시, 리처드슨 통해 대북 메시지 가능성"

BDA 해결 가능성 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이후 중단된 미군 유해송환문제 논의를 위해 오는 8~11일 북한을 방문할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의 고위소식통이 4일 밝혔다.

리처드슨 지사가 비록 미 정부의 특사 자격은 아니지만 부시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아주 크며, 난관에 봉착해 있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동결계와 이체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북핵 6자회담 문제와 북한 핵폐기 문제가 큰 가닥이 잡히는 올 가을쯤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이날 "2·13 합의 이후 북미관

계가 순항하던 중 BDA 문제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과 리처드슨 지사가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 북한이 그를 먼저 초청한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북한이 핵폐기 이행조치를 당초 약속대로 실천하게 중요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북미관계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삶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뜻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고위당국자는 다만 "현재 부시 행정부 내 기류를 감안할 때 리처드슨이 부시 대통령의 특사 역할을 하거나 그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부시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한국계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리처드슨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적잖은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쿠바-스페인 4년만에 관계 정상화

쿠바와 스페인이 4일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정식으로 서명했다.

아바나를 방문 중인 스페인의 미구엘 앙헬 모라티노스 외무장관은 이날 라울 카스트로 쿠바 임시 국가수반을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에 서명했다.

2003년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 외교수장으로서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한 모라티노스 외무장관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EU 27개 회원국들 내부에서 쿠바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정부로서는 EU 회원국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쿠바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외교관계 정상화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쿠바 정부의 개방, 정치범 석방 그리고 쿠바의 민주화 이행에 참여하는 방안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했다.

스페인을 선두로 그리스·키프로스·이탈리아·포르투갈은 가능한 빨리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프랑스·아일랜드 등은 "대화과 타협이 고립화보다는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중도입장을 취했다.

이민자 없었다면?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의 대도시들이 쇠락의 길을 걷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외 지역을 포함해 뉴욕 도심 지역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만명이 이르는 이민자들이 유입됐다. 만약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뉴욕 인구는 약 60만명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다른 대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美 뉴욕·LA 등 대도시 인구 감소 쇠락했을 것"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로스앤젤레스의 인구는 20만명 이상, 샌프란시스코는 18만8천명, 보스턴은 10만1천명 줄어 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시간주의 배틀크리크, 아이오와 주의 에임스, 오리건주의 코발리스 등과 같은 중소 도시들도 이민자들이 없으면 인구감소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사회국(PRB)의 인구 통계학자 마크 마더는 "미국인들이 기회를 찾아(대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갈 때 이민자들이 그 공백을 채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페루 시위대 "후지모리 송환하라"

페루 시위대가 5일 수도 리마에서 칠레에 수감 중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초상 인형을 앞세워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인 2세 후지모리는 1990년 페루에서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부패 등의 혐의로 2000년 권좌에서 쫓겨났다. 2005년 일본 망명을 끝내고 페루로 귀국하기 위해 칠레를 방문했다가, 페루 정부 요청으로 칠레 당국에 체포돼 수감 중이다.

정신 나간 日 해상 자위대

음란 동영상 돌려보다 이지스함 기밀 노출

일본 해상자위대원들이 음란 동영상을 돌려보다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5일 "가나가와현 경찰이 해상자위대 제 1호위대군의 호위함

'시라네'의 2등 해조 A(33)씨 외에 다른 자위대원 2명에게도 군사기밀이 퍼진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이지스함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 사건 관련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해상자위대원의 중국 국적 부인이 일본 당국에 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시작했다. 경찰은 A씨 집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여 이지스함의 레이더 정보 등 특별 군사기밀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발견했다.

이 기밀은 미일상호방위협정협정에 따라 미국이 일본에 제공한 것으로 이지스함에 탑재된 무기의 성능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제약품 기업광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캠페인은 제 1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보"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어보" 사랑해!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결을 한결을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랑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SENSTICK

이름다운 입술

민중의 비탄인을 주자

SENSTICK

http://www.kukjepharm.co.kr